

한 22예중 13예(59.1%)로 모두 21예(53.8%)였다. 이들 21예중 HBsAg 음성인 18예에서 모두 100 I.U. 이하의 경한 상승이 있다가 대부분 2개월이내 감소되었으나, HBsAg 양성인 3예(5예중)에서는 경한 SGPT 상승이 있다가 1개월이내에 감소되었던 1예를 제외한 2예에서 100 I.U. 이상의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고 이 중 1예에서 간부전 및 이식신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이식 2개월 후 사망하였다.

이상의 성적을 요약하면

- 1) HD군에서 CAPD군보다 간기능 장애를 보인 예들이 많았다( $p < 0.05$ )
- 2) 신이식군에서는 이식후 53.8%에서 SGOT 혹은 SGPT 상승이 있었으며, HBsAg 양성이었던 5예중 3예에서 상승이 있었고 이 중 1예에서는 중증 경과를 보였다. 따라서 HBsAg 양성인 경우 신이식시 간생검등을 포함한 더욱 세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투석치료가 환자 생존에 더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 28 —

### 신장 동종이식 수여자에서 나타나는 야간성 다뇨에 관한 연구

연세의대 내과

황성철 · 이호영 · 한대석

외과

조준필 · 박기일

신장 동종이식 수여자에서 나타나는 야간성 다뇨는 아직 확실한 생리적 기전이 규명되지 않았으며 이식후 약 1년이 경과하면 정상적인 노리듬으로 돌아 온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야간성 다뇨의 원인이 신사구체 여과율의 증가, 삼투성 이뇨, 혹은 수분성 이뇨인지 구분하기 위하여 신장 동종이식 수여자 및 수술 대조군 환자들에게서 소변양, 신사구체 여과율, osmolar clearance, sodium 및 free water clearance와 fractional excretion of water 등을 낮과 밤으로 나누어 각각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신장 동종이식 수여자에서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이식후 14일 및 28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야간성 다뇨를 나타내었다.

- 2) 신장이식 이외의 다른 수술을 받은 수술 대조군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야간성 다뇨를 보였다.

- 3) 신장 동종이식 수여자에서 낮에 비하여 밤에 osmolar clearance와 sodium clearance가 증가 하였으며 수술 대조군에서는 낮에 비하여 밤에 free water clearance와 fractional excretion of water가 증가하였다.

- 4) 신사구체 여과율은 모든 환자군에서 낮과 밤 간에 차이가 없었다.

- 5) 따라서 신장 동종이식 수여자에서 나타나는 야간성 다뇨는 주로 삼투성 이뇨에 의한 것이며 수술 대조군에서의 야간성 다뇨는 수분성 이뇨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29 —

### DST, CsA + P 및 Aza + P의 신장이식 예후에 미치는 영향

고신외대 내과

곽시영 · 홍관표 · 김성식 · 육동민 · 이성숙  
김경진 · 박진석 · 최창필 · 이시래

비교기과

김갑병 · 류현열

외과

이승도

지난 수년동안 DST(donor specific transfusion) 및 CsA(Cyclosporine A) 등의 신장이식에의 이용은 이식신의 성공율을 뚜렷이 올렸지만 아직도 DST가 이식신의 예후를 좋게하는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고 또한 DST후에 신이식을 할 경우 면역억제제로서 CsA + P(prednisolone)의 투여가 DST후 Aza(Azathioprine) + P투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연자들은 1984년 12월부터 1987년 2월까지 2년동안 고신외대 신장시식팀이 DST를 시행한 후 이식한 32예에 대하여 다소의 성적을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이들 32예는 haploid identical living related가 25예였으며 이것을 다시 Aza + P으로 치료한 13예(group I), CsA + P으로 치료한 12예(group II)로 나누고, 혈연관